

AI 확산... 산란계 농장 초비상

외부인 농장 출입빈도 높은 후진적 계란 수집 방식 '도마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살처분된 가금류가 1,000만마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 중 가장 피해가 큰 산란계 업계는 방역에 취약한 농장 구조를 개선하고, 광역 계란 집하장(GP)을 설립·운영하는 등 가금 생산 기반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14일 기준 고병원성(H5N6형) AI가 발생한 곳은 총 157곳이며, 이 중 전북지역은 14곳이다.

또한 도내 지역에서는 34농가에서 49만4,000수의 닭과 오리 살처분 매몰 처리했다.

이번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해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곳은 산란계 업계다.

전국 산란계 사육량 중 9.8%인 684만7000마리의 산란 종계 30만 마리

(35.4%)를 살처분 했기 때문이다.

산란계 업계는 올 여름 고온으로 인한 폐사와 생산량 저하 등의 후유증에서 회복하는 추세였지만, AI 발생으로 인해 다시금 사육기반이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산란계 업계의 고병원성 AI 피해가 큰 이유는 방역에 취약한 농장 구조와 후진적인 계란 유통 구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현재 대부분 계사 뒤편에 출하장이 자리 잡고 있어, 출하 시 계사를 거치는 까닭에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다.

하지만 농장주들이 차단방역을 위해 출하장을 농장 출입구에 다시 지으려 해도 지방자치단체나 환경부, 국토부 등의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한 규제에 막혀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산란계 업계는 차단·방역 효

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축산 시설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와 관련 한 산란계 농가는 "요즘 축산업에 대한 규제가 심해졌는데, AI로 인한 피해를 줄려면 정부가 나서서 차단·방역과 관련된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인의 농장 출입 빈도가 높은 후진적인 계란 수집 방식도 문제다.

한 산란계 농장에 3~4명 이상의 계란 유통 상인들이 계란 출하를 위해 출입하기 때문에 고병원성 AI의 수평 전파에 취약한 상태다. 실제 이번 발생된 고병원성 AI 중 2건이 계란 유통 과정 중 수평 전파에 의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산란계 업계에서는 방역에 취약한 후진적인 계란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광역 GP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정

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처럼 계란 유통 상인들이 농장에 찾아가 계란을 받아오는 것이 아닌, 광역마다 GP 센터를 설립해 이곳을 통해서만 계란이 유통되도록 해 수평전파의 위험성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산란계 농가 관계자는 "농가는 지정된 차량으로만 광역 GP 센터에 계란을 납품하고, 계란 유통 상인들은 GP 센터에서 계란을 수매하면 AI 확산 위험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면서 "정부가 광역 GP 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AI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13~14일 48시간 동안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전북농협은 전주권역 농·축협 상무들과 지점장으로 구성된 협의회 위원 9명을 대상으로 '상호금융 지역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전북농협, 상호금융 지역업무협의회 개최

전북농협(본부장 김태호)은 전주권역 농·축협 상무들과 지점장으로 구성된 협의회 위원 9명을 대상으로 2016년도 4분기 '상호금융 지역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상호금융지역업무협의회는 건전한 상호금융을 통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개선하고 발굴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고 상호금융

업무 모니터링, 지역 주요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해결방안 공유 등 상호금융사업 전반에 대한 토론회를 통해 각종 업무현안 사항에 대한 상호이해와 현장의견 수렴의 창구역할 수행하고자 다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임실치즈농협 최은석 상무가 지역업무협의회 활동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어 상호금융대표이사 표창과 시상품을 수여 받았다.

/인재용 기자

인력없고 고령화된 농촌, 벼농사 못 벗어난다

2014 기준 논벼 10a당 노동 시간 11.80 시간 현재까지 개발된 농업기술로 벼농사가 최고

정부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쌀 생산량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중앙정부차원의 쌀 생산조정제 도입을 통해 내년도 벼 재배면적을 3만ha 줄이려는 계획은 재정당국의 반대로 수포로 돌아갔지만, 지자체의 자체예산 확보를 통해 2만ha의 벼 재배면적을 줄이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나오고 있지만 정착 농가들은 시큰둥하다.

단위면적당 수입을 차지하더라도 현재까지 개발된 농업기술로는 벼농사 짓기가 제일 편하기 때문이다. 핵심은 노동력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발농업 생산

구조 및 생산성 지표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논벼의 10a당 노동 시간은 11.80시간이다. 1995년 34.7시간과 비교하면 1/3로 줄어들면서 연평균 5.6%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주요 발작물들도 노동시간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벼농사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옥수수의 경우 1995년 123.9시간이던 10a당 노동시간이 2014년에는 47.5시간으로 연평균 4.8% 감소했고, 같은 기간 고구마도 100.4시간에서 70시간으로 연평균 1.8% 감자는 117.6시간에서 52시간으로 4.2%씩 감소했다.

하지만 벼농사에 비해서는 4~6배가량 많이 든다.

또 다른 대표적 발작물인 마늘, 고

추, 양파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2014년 기준 10a당 마늘은 124.5시간, 고추는 160.7시간, 양파는 100.1시간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나 벼농사에 비해 10.5배, 13.6배, 8.5배나 더 노동시간이 투입된다.

노동시간과 함께 중요한 농업생산요소 중 하나인 기계화율은 벼의 경우 97.8%에 이르지만, 발작물은 56.3%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가장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는 파종·이식과 수확, 건조의 경우 벼는 각각 99.9%, 99.9%, 90.1%의 기계화율을 보이고 있지만 발작물의 경우 각각 5%, 13.3%, 0%를 나타내고 있다.

단순히 벼 생산량이 감소하지 않는 이유가 변동적불금과 같은 소득보전 장치 때문만이 아니라 인력을 구하기 힘들고 고령화된 농촌에서 구조적으로 벼 말고는 마땅하게 지을 수 있는 농사가 없기 때문이다.

/인재용 기자

이에 따라 논농업의 타작물 전환과 같은 정책적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발작물에 대한 기계화를 재고와 함께 수확 후 건조·저장·유통에 대한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농협 관계자는 "발작물의 경우 농가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파종과 수확 및 이후 처리"라면서 "일단 일일이 작물을 손으로 수확을 해야 하고, 건조와 저장, 판매까지 스스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발농업 기계화율의 재고와 함께 수확 후 생산된 농산물을 확실하게 처리를 해주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일손을 줄이고, 수입이 일정수준이 돼야 벼농사에서 발농사로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재용 기자

전주상의, 연말정산 실무강좌 교육 실시

전주상공회의소는 15일 5층 대회의실에서 도내 기업체 실무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강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강좌는 정영진 공인회계사가 강사로 나와 연말정산 개요, 연말정산 사전준비 및 절차, 근로소득의 개요, 연말정산 세액계산 등에 관한 강좌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강좌는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의 확대, 고용유지장소 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와 조세특례제한법 등 올해 새롭게 개정된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인재용 기자

전주롯데백 '이색희귀동물 초청전'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박종구)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백화점업계 최초로 12월 16일(금)부터 25일(일)까지 10일간 '이색 희귀동물 초청전'을 5층 특설행사장에서 진행한다.

롯데백화점은 평소 주변에서 보기 힘든 카멜레온, 도마뱀, 거북이, 콘스네이크, 앵무새 등 파충류, 조류, 갑충류 등 희귀동물 10여종을 백화점 매장에서 선보일 예정이며, 각종 체험 이벤트 및 동물 분양도 병행하여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백화점을 찾는 아이들에게 반려동물의 소중함과 이색동물과의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서울시 교육청 인준업체인 '팻스토어(www.petstore1004.com)'에서 전문 사육사가 직접 출장 전시를 진행한다. 행사장에 초청되는 반려동물 중 일부는 분양도 가능

하다. 집에서 직접 사육할 수 있는 세트를 포함해서 판매하며 장수풍뎠이 사육세트는 4만9천원, 레오파드 도마뱀 사육세트 35만원, 카멜레온 사육세트 180만원 등 다양한 가격대로 준비되어 있다.

/인재용 기자

캠코 전북본부, 장학금 전달

캠코 전북본부는 15일 전북도교육청에 희망 장학금 970만원을 전달했다. 이 기부금은 도내 교육복지 우선사업 시행 학교 내 소외계층 학생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올해 캠코 전북지역본부는 저소득 결식아동 식료품·학용품 지원, 아동센터 및 노인복지관 도서기증 등 도내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인재용 기자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전북 발효식품기업의 수도권 판로개척과 매출확대를 위해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서울 목동 행복백화점 4층 특별행사장에서 "전북 우수발효식품 수도권 특별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발효식품엑스포의 참여기업 연중 사후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 우수발효식품 특별전"을 시행하여 가격할인과 기념품 증정 등

전북생진원, 우수발효식품 수도권 프로모션 진행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가 진행된다.

판매 제품은 유통채널 전문 MD들과의 협의를 통해 2016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 참가한 전북 식품기업의 제품들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번 프로모션에 선정된 업체는 장류와 장아찌 제품을 생산하는 순창의 '장본

가식품', 새싹차 등 친환경 유기농 제품을 생산하는 진안의 '애농', 백련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원주의 '천연', 요거트 제품을 생산하는 임실의 '베트르비엔에프', 천마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무주의 '남영제약', 아재고추장 비빔밥 등 즉식발효식품을 생산하는

전주의 '착한음식' 등 총 6개사로 우수한 제품을 기존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전북 식품의 매력을 한껏 어필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전북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유통 채널에 입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연중 전북 식품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부안

으로

마실

오세요

주소: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67, 202호

만복건설 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扶來滿福